

순천대, 5년 1000억원 글로벌대학 선정...전남대 탈락

순천대 “농업, 애니·문화, 우주항공·첨단 기업 육성”

전남대 “부족한 부분 보완 내년 글로벌30대학 재도전”

5년간 1000억원이 지원되는 정부의 ‘글로벌대학30’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반면 예비 15개대학에 선정됐다가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전남대학교와 광주시는 지역사회와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을 강화해 재도전의 뜻을 밝혔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 세계적 대학 육성을 목표로 비수도권 지역

의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2027년까지 5년동안 각 대학에 1년에 200억원, 총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30’에 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순천대는 이번 글로벌대학30 지정을 위해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의 3가지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강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혁신안을 제출했다.

농업 중심의 전남지역 특성을 고려

해 고품스마트팜혁신밸리와 전남농업기술원·전남테크노파크를 조성해 세계적인 농업 중심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분야는 글로벌웹툰센터와 순천만국가정원과 여수해상공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육성과 순천·해룡·율촌·광양세풍(이차전지)·고흥우주센터·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연계해 우주항공·첨단소재 분야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순천대는 강소지역기업육성을 위해 3개 특화 분야는 단과대학 제도를 폐지하고 학과를 통합해 운영하는 혁신안을 제출했으며 중학교·고등학교 단계부터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순천대는 최종 선정 이후 글로벌대학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단행, 학내·외 구성원 대상 실행계획 설명회 개최 등 연차별 실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전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공 정착을 위해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성을 보일 계획이다.

순천대 이병운 총장은 “우리 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것은 대학 구성원의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지역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지자체, 산업계 등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분의 관심

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순천시 등 지자체, 지역 특화 기업들과 적극 협력해 계획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글로벌대학30 선정을 계기로 순천대가 강소지역기업을 육성하는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대는 지난 6월 교육부의 예비 15개대학에 뽑혔던 계획안을 토대로 수정한 뒤 내년 10개대학 선정 심사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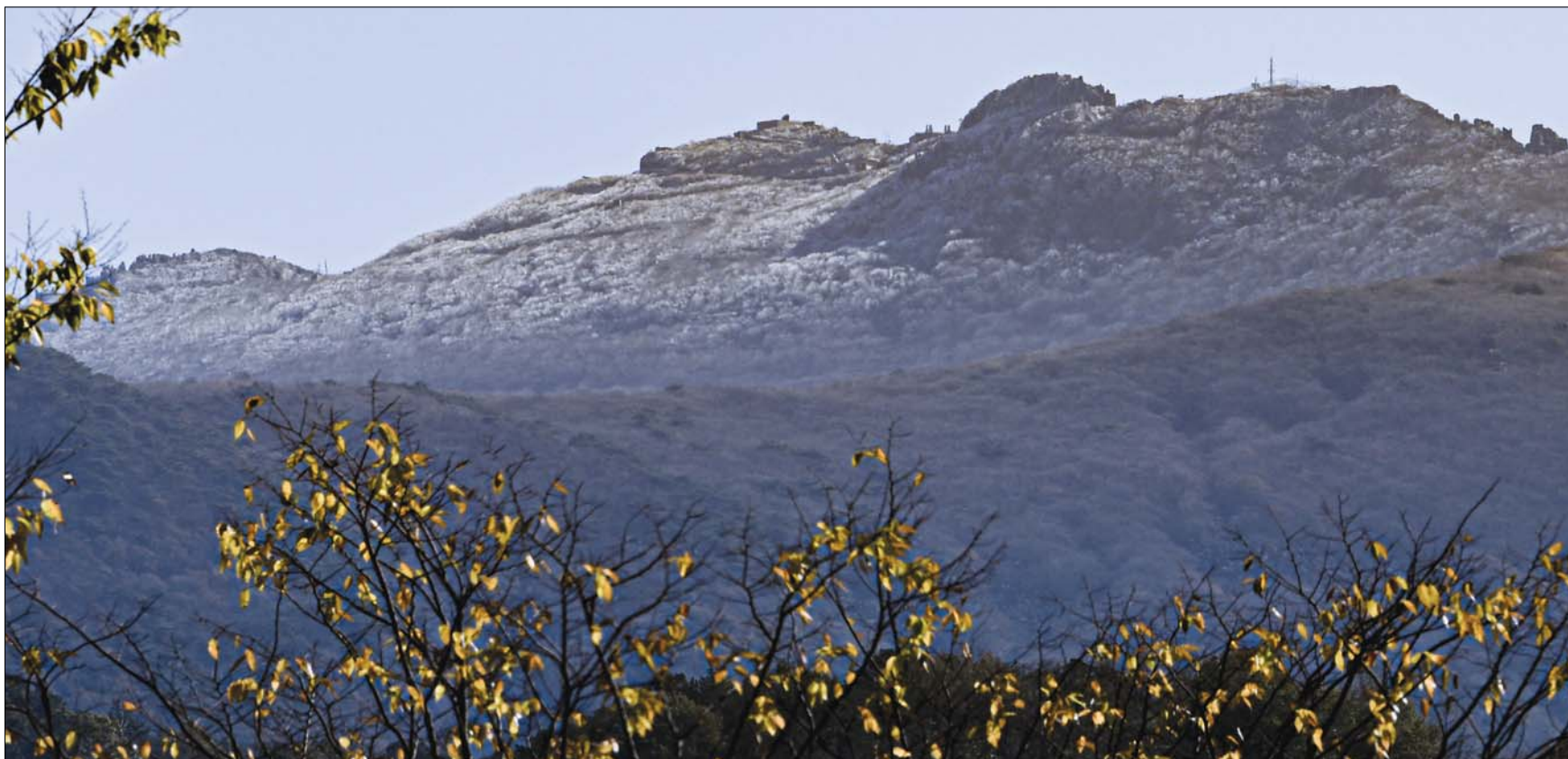
특히 이번 탈락의 원인이 전남대의 혁신성과 광주시의 지원 부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한 혁신안을 내년 심사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혁신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탈락한 것 같다”며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기회로 삼기 위해 ‘지·산·학 협력강화’ ‘1000억 지원’ ‘전남TF 구성’ 등을 계획했었는데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가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계속될 ‘글로벌30’ 사업에서 지역 대학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일상·조준익 기자



찬 기운 가득한 무등산 정상부

13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바라본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에 상고대가 맺혔다. 이날 광주지역 최저기온은 3.5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16일 ‘수능한파’ 없고 오후부터 비

오후부터 5~30mm 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당일 광주·전남은 수능한파는 없지만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13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6일 광주·전남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2~9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일겠다.

당일 아침최저기온은 장성 2.4도, 담양·화순 2.5도, 나주 2.8도, 광양 4.3도, 광주 4.8도, 순천 5.8도, 목포

6.3도, 여수 7.6도를 기록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13~16도 분포를 보일겠다. 다만 흐린 날씨 속 오후부터 5~3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지역도 있겠다.

/김도기 기자

전남 내년 본예산 10조7044억원 편성

3.5% 증가...어려운 재정 여건 속 미래투자·행복시책 추진

전남도는 10조7044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3381억원보다 3663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073억원(3.3%)이 증가한 9조5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이 증가한 1조1088억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00억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제일의 가치안전에 대한 중단없는 재정지원에 방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없는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은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52억원과 지방교부세 효율적 편성 등 선제적인 대응 결과라고 분석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3137억원, 지방교부세 1조2700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3155억원,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과 지방채 1500

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중점분야 주요 사업으로 ‘미래투자’는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과 교육용 장비 구축 등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69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 글로벌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97억원 등을 신규 반영해 미래 첨단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민생안정 행복시책’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중·소상공인 이차지원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지원한다.

/김 호 기자

민주광장서 ‘김장축제’ 열린다 2면

주52시간제, 일부업종서 완화 3면

한전, 흑자 전환 4면

스윙 분석하여 맞춤전문

나의 스윙과 특징을 파악하고 나면 나에게 맞는 장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 맞춤 클럽 제작
- 그립&샤프트 교체
길이교정
- 골프채 수리 및 맞춤 전문
- 라이&로프트 조정
- 스윙 분석
- 피팅 전문

골프박사&피팅

코로나 이후 골프에 관심이 높아지며, 기존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골프들은 맞춤(수제작)으로 눈을 돌렸고 아마추어골퍼들은 클럽 피팅을 통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클럽을 구매하는 것에 이질감을 가지지 않았다. 2030 세대의 새로운 골퍼들이 이 문화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제작 클럽을 구매하고 피팅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대중화 되어가고있다. 광주 피팅전문업체 골프박사 서경선 대표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든 본인에 맞는 장비 및 기구를 가지고 시합을 나가는 것이 당연하며, 골퍼는 특히 더 섬세하고 예민한 운동이라 본인에게 맞지않은 장비를 가지고 스윙을 한다면 최대효과를 볼수없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골퍼는 특히 본인에게 잘 맞는 옷을 입혀야 재미있고 골퍼를 할수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서경선 대표

H.P 010-3624-7875

광주시 북구 하남대로 603, 2F
 Tel. 062-523-2522 E-mail, sks0040@hanmail.net